

4월 1일 박환무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공고’ 라고 적고 두 가지를 적었다. 하나는 ‘지정 좌석제’로 출석 체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정되어있던 서평 발표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3시 정각이 되자 자신이 며칠 전에 여학생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말을 꺼내며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1일 신고한 내용에 대해 박환무 선생님에게 보낸 여학생처의 공문이었다. 12일 신고한 이후, 3월 18일, 25일 수업에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이나 기다리던 사과였다. 그러나 박환무 선생님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공문을 다짜고짜 읽어 내려갔다. 내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발언을 대부분 노트에 적어두었다. 여학생처로부터 온 공문을 토씨하나 안 빼고 읽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신고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다.

강의명-일본근대사

강사-박환무

강의실-위당관 414호

강의시간-화요일 7,8,9교시

이 수업은 근대 일본에 대한 사학과 전공수업이다.

강사의 평소 언어습관은 거칠고 험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은 대개 웃고 즐기는 편이다.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남학생이고 주로 고학번이다.

3월 12일 두 번 째 주 수업에서, 3시간 연강인 수업에서 한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강사는 "왕이 궁녀를 따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 이런 말도 했다. "학생들, 수업이 지루하니까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남학생들 담배 퍼도 상관 안합니다. (학생들 웃음) 창문 열어놓고 구석에 가서 피고와도 상관 안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요. 다만, 여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여학생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학생들 웃음)"

‘강의명-일본근대사’ 에서부터 수업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쓴 ‘(학생들 웃음)’이라는 표현의 ‘괄호’까지 읽어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한번 들어 봐라’ 하는 식으로 느껴졌고 내가 쓴 글이 교과서 읽히듯 토씨하나 안 빼고 읽히는 동안에는 나는 ‘내가 뭘 잘못된건가..’하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이 글은 학생들에게 읽어주라고 해서 읽는 겁니다.’라는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여학생처에 보낸 회신 글을 읽었다. 자신이 여학생처에 보낸 회신 글을 역시 토씨하나 빼지 않고 읽어주었다. 그가 보낸 회신문의 내용을 모두 기억할지 못하지만 ‘공문을 받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신고한 학생은 수업 전체의 분위기와 맥락을 언급하지 않고 비방했다.. 마치 수업시간에 웃기려고 한 것처럼 써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고 (따먹는다는 표현), 강의록이나 본인이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기가 찬다. 아내와 친구인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세 번째 단락의 흡연 이야기는 3시간의 수업이 지루하기 때문에 말했을 뿐이다.. 공적인 일이고 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회신을 보낸다’ 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신고한 학생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여학생처의 회신문을 읽어주었다. 회신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는 말도 했다. 첫 번째 여학생처로부터 온 공문은 도장이 찍혀있다면서 문건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도장이 찍힌 공문은 계속해서 보관된다는 말도 했다. 역시 토씨하나 안 빼고 읽어주었다.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했더라도 한번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의 인사말인 '박환무 선생님의 건강과 주님의 은총을..'하는 부분까지 읽어주어 학생들이 웃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영문도 모르던 학생들은 문서의 상투적인 인사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되어있던 강의실의 분위기는 풀어졌다. 연속해서 문건을 읽어주는 바람에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고, 내가 신고한 행위나 여학생처의 처리 과정이 진지하게 전달되기보다 희화화 된 느낌이었다.

자신이 회신을 보낸 시각이 새벽 4시 20분이라며 공문을 받고 며칠동안 잠도 못 자고 괴로웠음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는 김유철 선생님에게 자신이 보낸 개인적인 편지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었다.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불이익을 당하느냐고 물어도 아무도 모르더라. 대자보까지 언급했던 것(회신하지 않을 경우 대자보가 붙을 것이라는 말인 것 같다.)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실제와 다른 날조 비방으로 쓰인 익명의 글 하나만으로 내막도 모른 채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4월 1일부터 나는 강의를 하지 않겠다... 강사 교체를 건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김유철 선생님에게 두 번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며 그것도 읽어주었다. "거듭 강사 교체를 부탁한다.."

자신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지 너희 한번 들어봐라 라는 식으로 공문 읽기를 끝냈다. 김유철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다면 아마 그것도 읽었을 것이다. 답장 대신 전화가 왔다면 "행정 처리 어려우니까 그냥 웬만하면 조용히 처리하지~"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여학생처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정해진 포맷에 내 이름만 넣어서.. 정신적 피해가 많다' 라고 말했다. 자신을 '성희롱 용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의 글은 추적도 가능하다. 공익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게시자를 공개해야한다는 일본의 판례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여기까지 4~5가지의 문서 읽를 읽고 말한 박환무 선생님의 언행을 종합해보면 사과라기보다 자신이 당한 황당한 사건에 대한 토로였던 것 같다. 3월 11일 신고한 글에서 첫 번째 단락의 거칠고 험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했다. '수업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올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중간 중간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극구 부인했다.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를 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지만, 실제로 담배피도 된다고 말했고 그것은 진심 같았다. 내가 기분이 나뉘었던 것은 담배를 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사과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공문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 임성모 선생님과 김유철 선생님, 변호사에게도 공문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조금 전 내 글이 읽혔을 때 느꼈던 당혹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자신이 인정할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의 ‘거칠고 험한 말’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분 나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애매한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의 일방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다른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 내가 신고자임을 말하고 싶었으나 그때까지의 분위기가, 신고자는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가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밝힐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따먹는다는 발언을 들은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때 담배 애기 기분 나빴다. 종군 위안부.. 애기하던 지난 주 수업시간에도 따먹는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다. 박환무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했다. 아마 누군가의 말을 옮긴 것일 거다.’라고 대답했다. 그 여학생이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하자 박환무 선생님은 ‘그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인데, 그것까지 말을 고쳐야 하나’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 여학생이 다시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덧붙여 말해주어야 하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박환무 선생님은 ‘앞으로는 예를 들 때 조심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학생의 발언에 이어 몇몇 남학생들이 힘이 빠진 선생님을 위로하듯 선생님 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 말은 없다며 ‘넣다’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 때에도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간간히 웃음도 터져 나오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마치 의견이 수렴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박환무 선생님이 공문을 읽어주는 태도나 그때 했던 말들은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합의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지만 그렇게 되어선 안되는 것 같다. 변호사 얘기, 익명게시판의 공개 얘기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다. 농담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농담처럼 섞여 지나간 ‘따먹는다’라는 발언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뿐이다. 또 익명이기 때문에 ‘날조와 비방’ 되었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익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수업시간에 바로 문제제기하지 못했던 것에도 신고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신고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발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변호사 얘기는 대자보 대목에서 한 얘기였다. 절대로 협박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글은 목적을 가진 글이었다. 첫 문단의 글은 성희롱을 제지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었다’고 대답했다. 성희롱은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박환무 선생님은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박환무 선생님은 ‘익명으로 글 올린 학생, 앞으로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문제제기 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모니터링 할 경우에 미리 강사나 교수의 허락을 받고 모니터링 한다’는 말을 했다. 그는 신고자가 허락 없이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말을 강조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것을 마치 수업시간에 강의하듯 늘어놓는 바람에 정작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을 놓친 것 같다.

긴장된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한 남학생이 “신고 학생으로 인해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괴

로웠겠지만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이 일로 선생님께서 강의 의욕을 잃어 생
기 있는 강의를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전혀 예를 들지 않거나 농담
하지 않으신다면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여학생이
'선생님이 농담할 때 학생들이 웃는 바람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 그런 발
언이 오히려 앞으로 선생님에게 직접 문제제기하는 데에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대응했다. 이날 선생님의 언행 못지않게 당혹스럽고 입을 열기 어렵게 한 요인은 발언했
던 남학생들이었다. 설불리 말함으로써 신고자가 바로 나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망설이게 되
는 것이다.

선생님은 '성희롱 용의자.. 이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대로 성희롱 용의자면 난 이혼당
한다. 옆학교에 딸도 있고...'라며 '농담'을 했다. 종군위안부 애기와 매매(賣買)춘(春)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이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웃었다. '나 같은게 무슨 서평발표회냐 .. 서평발표는 취소합니다.'
라며 다시 한번 공고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지정좌석제는 너무하다고 불평하자 출석 체크하
는 원칙은 지켜야하다면서 이제부터 좌석으로 출석체크 하겠다고 공고했다. 학생들과의 대
화까지 총 2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끝났다. 나는 한 시간 동안
의 수업을 전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다짜고짜 공문을 읽어주었던 선생님의 태도, 내가
쓴 신고 글이 읽혀지는 상황, 그리고 변호사와 익명공개 이야기에 불안해졌다. 박환무 선생
님은 학생과 선생 사이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나는 선생님
을 신뢰할 수 없었고 힘없는 학생으로서는 그냥 철회를 하고 끝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
했다. 신고를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2시간 내내 초조해하고 당혹
스럽고 불안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학생들이 가졌다는 점, 다른 여학생들도 기분이 나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에 만족하려고 했다.

오늘 4월 2일, 총여학생회를 통해 박환무 선생님이 '사실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
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고소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신고할 때가 다시 생
각이 났다. 익명으로 글을 쓴 것은 신고를 통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
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글을 쓸 때, 선생님이 한 말이나 수업 분위기를 최대한 가
감 없이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의 첫 번째 단락에 수업 분위기를 설명
하려고 했고 그 뒤에 철저하게 선생님의 말만 옮기려고 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 학생들의 반
응까지 담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만 부정하고, 4월 1일 사과의 태
도 역시 인정하는 태도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학생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처럼
생각되어 철회로 끝내지 않기로 했다.

3월 11일의 발언과 4월 1일의 사과 태도에 대해 박환무 선생님의 진심어린 사과를 서면으로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과문을 학생들 앞에서 읽어주기를 바란다.